

동서대학교 일주일 사이 3개 사업 석권

더욱 열심히 뛰는 대학 되겠다



▶동서대학교 모습

동서대학교는 1주일 사이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아프리카·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장재국 총장은 "산학협력과 국제화에 힘을 쏟고 있는 우리 대학으로서의 남보, 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뛰는 대학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은 동서대학교가 오래전부터 기반을 닦아오고 있는 분야로써 현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서대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 사업을 1, 2단계 수행하였고 LINC+ 사업을 연속으로 추진하며 '특성화 분야·문화·예술콘텐츠·세계적 수준의 산학협력 모델대학'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

실제로 문화콘텐츠 특화 산학협력력을 구축한 뒤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와 사업화를 추진하여 다양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문화콘텐츠 Start-Up을 통해 교원·학생창업으로

연결했으며 문화콘텐츠 합작회사(SPC)를 설립하였다. 이어서 동서대학교 뮤지컬 R&BD ICC(기업협업센터)는 선텐시터를 중심으로 뮤지컬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덕분에 동서대학교는 문화콘텐츠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해나가고 있으며 문화예술의 세계화 시대를 열어나갈 전망이다. 또한 아시아 영상문화도시 부산을 선도하는 대학, 지역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특성화 대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상을 실현할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월 28일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단계 평가를 통과한 동서대는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고 더 큰 성장을 이뤄낼 예정이다.

이에 조대수 LINC+사업단장은 "독특하고 차별화한 산학협력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부응하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학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LINC+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학,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2019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 사업"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동서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등 전국 4개 대학만이 선정되었고 우리 대학은 2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동서대가 맡게 되는 분야는 중남미 ICT Convergence(ICT 융합)이다. 다시 말해 4차 산업혁명의 부상에 대비해 컴퓨터공학, 콘텐츠공학 또는 디지털/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한 중남미 학생 20명에게 첨단 ICT 산업 기반기 교육을 하는 것을 뜻한다. 연수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5주간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을 참가하는 중남미 대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숙식비, 수업료, 보험료 등 체류비용 일체가 지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서대 창업지원단이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창업지원단은 지난 3년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는데 그 노력의 결실로써 2018년 성과평가 결과를 인정받아 2019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환이 확정된 것이다.

동서대 창업지원단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창업 활성화 등 초기창업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학별 자율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 및 교원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3개의 사업에 잇따라 선정된 동서대학교는 앞으로 미래형 대학이라는 수식어에 알맞게 혁신적인 교육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업 이외에도 현재 다양한 국제사업을 수행 중이며 끊임없는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필리핀 대학 학위수여식서 졸업 연설

만나는 사람에게 소중히 대하라



▶필리핀 대학 학위수여식 기념사진

4월 5일 필리핀 국립대학인 Camarines Norte State College에서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제27회 학위수여식 졸업 연설을 진행하였다. 장재국 총장의 졸업 연설은 이 대학의 러스티 아반토 총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학위수여식 당일 장재국 총장은 "졸업식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장장 5시간 동안 거행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17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대학 총장께서는 4시간 넘게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저도 덩달아 서서 졸업생들과 악수를 했는데 나중에는 손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러나 참 보기 좋았다."라며 당시 현지 분위기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날 장재국 총장은 졸업 연설을 통해 학위를 쓴 졸업생들에게 3가지를 당부하였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친절하고 소중하게 대하며 가슴속에 깊이 기억하라고 했다. 그들로 인해 훗날 여러분이 크게 기쁜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대가 간절히 소망인 중국 캠퍼스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장 총장이 미국 유학 시절 만났던 중국 학생과의 인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연도 함께 소개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가지라고 했다. 소명의식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고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큰 도전과 고난을 만났을 때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오늘 학사모를 쓰는 졸업생들과,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라는 말을 끝으로 졸업 연설을 마무리했다.

학위수여식을 마무리한 후 필리핀 대학 졸업 연설에 대한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이에 필리핀 학생·교수들의 감사 댓글이 연이어 남겨졌다.

▲레이날도 아바네즈 학생은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업 연사로 총장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필리핀의 10대들은 한국 드라마에 거의 광적입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합니다. 필리핀을 방문해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쉬 말로레스 교수는 "내 물건을 정리하는 동안 장 총장님이 비폴대학교에도 졸업식 연사로 왔던 것이 생각납니다. 저의 학생들이 워낙 훌륭한 졸업생들이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이벤트였습니다. 장 총장께서는 그 당시 아주 훌륭한 졸업연설을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장 총장께서 건강을 잘 유지해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축복과 영감을 주도록 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은 장 총장 같은 혁신적이고 영감을 주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계속 좋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선정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와 팀워크 강화하겠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프로그램 진행 모습

동서대학교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이 사업에 선정된 곳은 동서대,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충남대, 한국외대 등 총 15개 대학이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이란 다국적 대학생들 간의 교류활동을 지원하여 글로벌 역량 강화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유학생의 한국 문화, 역사,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국가 간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동서대학교는 '아시아의 허브 부산, 글로벌 청년의 꿈을 품다'라는 주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하여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 각 50명씩 총 100명 여의 인원이 참여 중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부산 지역 글로벌 기업과 산업 인프라는 물론 동서대 특성화 학부의 교육 인프라, 산학 네트워크,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참가 학생들에게 체험형 프로젝트 기반 프로그램 지원하게 된다.

한경호 동서대 국제처장은 "속박형 견학

및 문화체험, 산업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국적 학생들 간 교류와 팀워크를 강화하고, 부산지역 산업의 중요도와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국제청소년리더 교류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다국적 대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해 앞으로 동서대학교의 글로벌 역량에 대한 무궁한 발전이 기대되는 바이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IPP 사업단 성과평가 A등급 쾌거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

지난달 4월 2일 동서대학교의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이 2018년도 IPP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게 됐다.

이번 성과는 조직관리, 목표 달성, 실습관리, 연계 취업률, 참가자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전국 38개 IPP 사업 운영대학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주관하였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맡아 진행하였다.

동서대학교는 2017년에 IPP 사업 운영대학에 선정되어 산학 공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산업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힘을 쏟아오고 있는 중이다.

IPP 사업 운영을 위해 학사 제도를 개편하여 IPP에 참여하는 학생은 4개월 기준으로 12학점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방학 중 계절학기로서 전공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참여율과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현장실습비 외에도 대학에서 따로 장학금 및 현장실습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매월 8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7개 학과에서 150명의 학생이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였으며 참가 학생 중 41명은 현장실습 기업에 채용됐다. 올해는 참가대상을 전 학부로 확대하여 지역 기업 150개 이상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110여 명의 학생들에게 IPP를 지원



▶IPP형 일학습병행사업 성과보고회 모습

할 예정이다.

또한 동서대학교 IPP 사업단은 2018년에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어 2019년부터는 일학습병행제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장기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학생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일학습병행제 시행에 따라 동서대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36명의 학생들은 졸업하기 전 학습 근로자로 선 채용되어 1학기는 대학에서 직무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 교육을 받고 8월부터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인정받고 졸업과 동시에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박준식 동서대 IPP 사업단장은 "IPP 일학습병행제는 학생들이 기업에서 장기간 일하면서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 '경력 있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기업과 함께 성장할 차별화된 인재 양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박효진 기자
pahyork@gmail.com

동서대 부산지역 맞춤 전문인력 양성

4차 혁명 시대를 이끌 국제물류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학생들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동서대학교 국제물류학전공이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 인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년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학교육 특성화를 선도하고 있는 동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마인드로 무장한 스마트 물류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발전과 취업을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이 사업은 부산시가 해양수산 식품, 친환경에너지, 항노화 산업, 금융, 물류 등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 인제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 '부산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난 2월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부산시는 지역 전략산업 특성과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커리큘럼과 시설·장비 등을 보유한 부산지역 대학(4년제, 2·3년제 포함)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사업 공모를 통해 5개 사업단 선정을 끝냈고 교육에 들어가는 사업 추진 절차를 밟았다. 교육 운영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생 25명 이상을 모집한 뒤 250시간 이상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결과 보고는 오는 12월 최종 성과평가 등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사업평가를 통해 취업률 등의 성과가 높은 우수 사업단에는 다음 해 사업 공모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심사 절차는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로 진행됐다. 심사 기준은 사업단 구성, 사업내용, 예산계획, 추진체계 등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더불어 자부담 대칭(10% 이상)과 기업협약, 약정 맨 가점을 적용해 진행됐다.

사업단 명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스마트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사업단장 한철환 교수)이다. 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이론 교육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 초청특강 외에, 국내 및 해외 현장견학, 기업체 현장실습, 취업아카데미를 통해 이론과 실무

를 겸비한 스마트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부산지역 물류업계의 수요를 충족케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대학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부산시 전략산업 분야의 수요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의 인적자원 역량 강화 및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는 3억 3500만원 규모의 예산으로 총 5개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을 선정해 지원한다. 공모 분야였던 ▲해양산업(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융합 부품소재산업(기계, 자동차, 항공, 친환경에너지, 신발섬유) ▲창조문화산업(영상콘텐츠, 정보통신산업, 디자인·패션) ▲지식인프라서비스산업(항노화, 고령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과학) ▲바이오헬스산업(관광마이스, 금융, 물류) 등은 5대 전략산업 18대 유망분야다. 김기환 부산시 성장전략본부장은 "부산전략산업분야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청년실업·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

산시-대학-지역 간 협력체제 강화로 지역 경제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 산학협력단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부산지역에서 총 14개 사업단이 신청하여 5곳이 선정되었으며 물류 분야는 동서대가 유일하다. 한철환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은 "동서대 국제물류학전공은 기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해운 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국제 교류 협력사업단과 산학연계사업단 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부산지역 최고 물류학과로 성장하는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제통상 물류학부는 '2019 부산시 전략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참가 자격은 동서대 혹은 동의대 물류 관련 전공자 중 기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다. 신청기한은 이번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 또는 사업단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총 270시간이다. 교육내용은 기본교육(30시간), 심화 교육(30시간)을 통한 이론교육(5월과 9월)과 현장 견학(부산신항, 광안항, CJ 대한통운 물류 허브 견학, 1박 2일 2회), 물류 기업 현장실습(방학 중 1개월, 7월), 멘토링 교육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10월), 전문 강사를 통한 취업 지원 교육(10월)으로 이루어진다.

4차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 및 국내 지자체에서도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기술, 교육과 더불어 4차 산업을 견인할 핵심 요소인 인재양성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 그 출발에 한 걸음을 내디딘 동서대가 보다 넓은 지원을 토대로 창의력과 실력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낼 것을 기대해 본다.

사업단 사무실 : 경영관 8602, TEL : 320-48-9, E-mail : dsm8602@naver.com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2019 동서대 학생 신앙강좌 개최

‘공감공존(共感共存)’을 주제로



▶공감공존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변용세 목사

지난 4월 2일부터 3일 이틀 동안 산학협력관 대강당(복음화센터)에서 학생 신앙강좌(동서대학교 Ace+사업단 주관, 동서대학교 교목실 주최)가 개최됐다. 이번 신앙 강좌는 변용세 목사(찬양사역자)를 초청하여 진행됐다.

신앙 강좌란 신앙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 형식을 취하여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사상 등을 전하는 강습회나 방송강의 등을 가리킨다.

변용세牧사는 찬양사역자이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부터 찬양을 시작해 1986~1997년까지 사랑의 노래선교단과 늘노래 선교단에서 음악 전도사역을 했다. 현재는 개인찬양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기독동아리(CCC, SFC, YWAM, DSM, 인터콥)와 체플란 앙뎀(VIC)이 찬양과 봉사에 하나 되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변용세 목사도 넘치는 성령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체플을 듣는 학생들의 귀를 정화해줬다.

공원이 끝난 후 '공감공존(共感共存)'(로마서 12:15)이라는 주제로 1~3학년 재학생 총 7000여명이 변용세 목사의 말씀을 들었다. 변 목사에게서 특히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노래 선곡이나 영상 제작을 모두 스스로 한다는 점이었다. 노래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

지를 담은 곡이나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곡이었기 때문에 체플을 듣는 학생들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더불어 장애를 이겨낸 소년의 이야기도 학생들의 감성을 자극했다.

변용세 목사는 "체플 과목이 강제성이 있기에 학생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체플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인생이나 삶에 대해서 뭔가 주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거든요. 학교 측은 기독교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종교와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편한 부분들을 제거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지난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71.7%가 좋았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만족해하였다. 또한 주님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이미 믿는다'가 15%, '오늘 믿기로 했다'는 4.2%, '다시 믿기로 했다'가 2.4%로 응답하였으며 6.6%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는 새롭게 믿기로 하여 동서대 전체학생 중 그리스찬 비율은 21%에 이르렀다.

자료출처 : 네비버 지식백과[신앙강좌]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부산 행사전문 플랫폼 ‘놀라’ 개발

동서대 관광학부 산학 공동 연구 결과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놀라' 홈페이지

동서대학교 관광·MICE 센터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단(단장 홍정화)과 징검다리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덕은)이 부산 지역에 특화된 행사 및 이벤트 전문 플랫폼인 '놀라(nolla)' (<https://www.nolla.kr>)를 개발하여 사업화가 나섰다. 놀라(nolla)는 관광의 기본개념인 '놀이'에서 착안한 신규 관광 플랫폼 브랜드다. '놀~라'은 부산 행사 정보의 일부를 따 지은 이름이 쉽고 인상적이며 기억하기에도 좋다.

포털 검색창에 '부산 연극'이나 '부산 공연' 등을 검색하면 수천개 되풀이되는 연극과 유령 가수의 콘서트 정도만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 부산을 '문화 불모지'로 여긴다. 이들은 이런 편견에 반기를 들기 위해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부산에는 놀라운 문화와 행사들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 행사 전문 플랫폼 '놀라'를 개발한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웹 기반 플랫폼인 놀라에 접속하면 부산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 행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극과 콘서트, 뮤지컬 등은 물론 원데이 클래스, 소규모 강연, 전시회, 골목 투어, 경연대회, 소모임

등 가지각색의 정보가 뜨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한 사람들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월별, 주간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취합돼 있는데 월별로 따지면 150~250건의 행사가 놀라를 통해 노출된다. 징검다리 커뮤니케이션은 자체 보유한 웹로봇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한 군데로 모은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게시된 행사 관련 광고 글에서 장소, 시간, 참가비 등 핵심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많은 양의 프로그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산시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행사 알림 홈페이지는 놀라가 제공하는 정보의 10% 이상 담아내지 못한다.

징검다리 커뮤니케이션이 개발한 놀라처럼 특정 분야가 아닌 문화 행사 전반을 소개하는 플랫폼은 여태껏 제대로 출시된 바가 없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은 예매 대행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한편 서비스 기반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장할 목표를 세웠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의 김덕은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

로 문화 서비스 대중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양 기관이 2018년부터 손을 잡고 진행한 산학공동연구 결과물인 '놀라(nolla)'는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이벤트를 위치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웹 로봇 소프트웨어이다. 기존에 행사정보를 소개하는 소프트웨어는 각종 홈페이지로부터 정보를 찾고 편집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의존하여 별도로 사람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웹봇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으로 정보를 찾는 기능을 갖추었다.

또한, 이벤트 기획자가 모바일 웹(mobile web)을 통해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여, 일반 소비자들과 행사기획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부산시민들에게는 부산의 다양한 행사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예약결제 시스템이 필요한 기획자에게는 '행사 홈페이지 빌드 및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개발을 진행한 홍정화 관광학부장은 "향후 관광산업의 미래는 관광이라는 유희적 가치와 ICT 기술의 융·복합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개발은 관광과 ICT가 결합한 솔루션이라는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덕은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 대표는 "행사 홈페이지 제작부터 홍보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솔루션을 통해 부산시민과 기획자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징검다리커뮤니케이션(주)은 2018년 부산형 착한 기업에 선정된 부산 소재 문화 행사 소프트웨어 솔루션 스타트업 기업이다. '놀라(nolla)'가 부산지역 행사 기획자와 부산시민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동서대, 국내외 취업 지원사업 선정 쾌거

학생들의 꿈을 위한 한 걸음



▶우리 대학이 선정된 세 개 사업

1 'K-Move 스쿨' 7년 연속 선정

동서대 학생취업지원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주관하는 해외 취업사업인 '2019 K-Move 스쿨'에 3개 과정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K-Move 스쿨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기업이 원하는 어학 및 직무교육으로 구성된 연수를 받고 수료 후 해외 취업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15~34세 이하(국가별 조건 상이), 고졸 및 대학,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올 2월에 1차로 선정된 과정은 미국 산업 그래픽디자인어 양성과정(20명), 미국 IT 엔지니어 양성과정(15명) 등 3개 과정이며 모집인원은 총 55명이다. 학생취업지원처에서는 4월부터 설명회를 열어 K-Move 스쿨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은 7월부터 8~9개월 동안 직무·어학·필수·소양 교육을 받은 뒤 미국, 일본 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K-Move 스쿨 학생들에게는 국내외 교육비 전액과 교재비, 시험응시료, 비자 수수료(일부)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훈련은 6~12개월, 1인당 최대 80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단기훈련은 3~6개월, 1

인당 최대 58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동서대는 K-Move스쿨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439명을 교육시켜 글로벌 무대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였고, 지난 10여 년간 해외취업에 큰 실적을 쌓은 공로로 2016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K-Move스쿨은 금년 6월에 2차로 미국 패션, 미국 무역, 베트남비즈니스, 일본서비스 등의 분야로 추가 신청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부산경영자총협회와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선정

학생취업지원처는 올해 부산광역시 추진하는 '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컨소시엄을 맺고 공동 운영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일본, 베트남으로 해외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6월부터 동서대학교에서 1개월간 국내교육 후 현지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현지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한국 청년들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조건이 팬텀은 해외 현지 기업체들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부산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인

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한 박람회도 많이 있다. 이런 박람회에 참여하면 다양한 정보와 유망기업의 1대 1 면접 기회도 얻을 수 있다.

3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국내취업분야에선 2019년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미취업 졸업생,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학생, 성적하위권 학생 등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태로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은 3~4학년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취업멘토링(임사지원서 컨설팅, 면접 교육 등), 선배와의 만남(토크쇼), 기업탐방(부산 중견, 강소기업), 현장실습, 기초 직무자격증 취득반 운영(전 어 년간 해외취업에 큰 실적을 쌓은 공로로 2016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K-Move스쿨은 금년 6월에 2차로 미국 패션, 미국 무역, 베트남비즈니스, 일본서비스 등의 분야로 추가 신청할 예정으로 금년도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은 2017년 59명, 2018년 68명이 수료하였으며, 그중 2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동서대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 학생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우수인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들의 중소기업 진출 확대를 통해 청년실업이 해소되고 경기회복과 더불어 개선되는 일반 실업률에 비해 여건이 높은 청년 실업을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윤다는 기자
yoondasol73@gmail.com

세계의 어버이날은 어떨까? 어버이날의 유래와 각 나라의 어버이날



매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 5월은 가족과 관련한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다. 가정의달은 이러한 기념일을 축하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생

각하자는 의미로 가정의 달로 불리고 있다. 가정의란 중 어버이날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노인과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5월 8일이 어버이날로

지정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의 날짜가 우리나라와 다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어버이날과 세계 어버이날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나라마다 어버이날을 어떻게 기념하는지 알아보자.

#어버이날의 기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버이의 날은 어머니의 날이었다. 어머니의 날의 첫 기원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크로노스의 아내이자 수많은 신의 어머니인 '레아'를 기리기 위해 어머니의 신 '시빌레'를 위한 봄 축제를 열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순절 넷째 주 일요일에 성모 마리아를 위한 예배를 올렸는데 그 이후 영국, 미국 등 기독교 국가에서 종교적 관습으로 비롯되어 점차 종교적 의미가 열어지면서 모든 어머니를 대상으로 행사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 어머니의 날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 카네이션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님께 달아드리는 카네이션은 왜 어버이날을 대표하는 꽃이 되었을까? 그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1910년경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하여 흰 카네이션 꽃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을 시작으로 카네이션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의 캠페인이 생겼으며 미국에서 1908년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하여 살아 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색 카네이션을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착용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풍습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게 되면서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달아주게 되었다. 카네이션의 꽃말은 '모정, 사랑, 부인의 애정' 등 꽃말이 다양하지만, 어버이날에 선물하는 빨간색 카네이션은 '건강을 비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꽃

말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날

어버이날은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로 퇴색되어 가는 어른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하고 국민 정신계발의 계기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법국민적 기념일의 의미를 담고 있다.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해 오다가 아버지의 날이 거론되었다. 아버지의 날이 거론된 후 1973년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합쳐져 부모님께 감사하는 아버지의 날로 변경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어버이날에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전해주는 등 부모님께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며 가족끼리 즐겁게 지내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어버이날 행사를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개최하여 모범가정을 선정해 포상하고, 상을 주며 어버이날을 격려하고 있다.

#미국의 어버이날

미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 어머니날은 5월 둘째 주 일요일,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이다. 어머니날에는 온 가족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아침상을 준비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 우리나라처럼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하는 쪽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아버지날에는 가족을 위해 일하는 아버지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며 'Happy mother's day', 'Happy father's day'라는 인사를 한다.

#중국의 어버이날

중국은 어머니날과 아버지 날로 구분하

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어머니날(무친지예)은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이며, 아버지 날(부친지예)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중국은 카네이션 대신 '원추리'라는 꽃을 주는 풍습을 가지고 있다. '원추리'는 '어진 어미'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으며 당 태종이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며 후각 정원에 꽃을 심었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원추리'꽃은 중국에서 근심을 잊게 해주는 꽃이란 뜻이 있으며 근심을 잊으라는 의미로 부모님께 꽃을 선물한다고 한다.

#멕시코의 어버이날

멕시코에서 어머니날은 5월 10일, 아버지날은 6월 셋째 주 일요일로 지정되어 있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어머니날이 되면 자신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니를 기리며 성대하게 기념식을 한다. 백화점과 레스토랑에서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풍선과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경제효과가 발생하는 날이라고 한다. 또한 이날은 멕시코의 전통 민요음악인 '마리아치' 노래를 부모님께 들려드린다고 한다.

#캐나다의 어버이날

캐나다도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 기념하고 있으며, 날짜는 미국과 같은 날짜이다. 캐나다에서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는 날이므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선물과 함께 'Hanging Basket'이라고 하는 꽃바구니를 선물한다고 한다.

▷사진출처 - Pixabay
자료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특별한 경험을 직접 얻을 수 있는 방법

동서대학교의 교환학생과 SAP(Study Abroad Program)



▷사진출처 - Pixabay

대학생활 때 한 번쯤 로망을 가지며 대학생이 된다면 꼭 한 번 도전해보자 할 해외프로그램. 동서대학교에서도 학점인정을 받으며 한 학기에서 최대 1년을 다닐 수 있는 교환학생과 SAP(Study Abroad Program) 프로그램이 있다. 어떤 나라에 교환학생 지원을 할 수 있는지 SAP는 어떤 프로그램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교환학생이란?

교환학생은 결연한 대학교끼리 공식적으로 학생을 상호 파견해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도록 하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다. 다수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 국제 학생들과의 다각적 교류, 전공에 관한 심층 연구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환학생을 지원해 본다면 가까운 다른 나라로 직접 가겠다는 계획도 세우면서 교환학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지원하는 건 어떨까?

#교환학생 지원하기

먼저 본교 홈페이지 및 각 학부 게시판 등을 통해 교환학생 선발 공고를 보고 국제교류센터에서 교환학생 지원서를 접수한다. 두 번째 서류심사와 여학 및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가 발표된다.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 및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네 번째 출국 일정과 비자 신청을 통하여 교환학생을 떠나게 된다. 선발자격요건은 우수한 학업능력과 좋은 성품을 겸비한 당도 유학에 대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지닌 학생, 전체 평균 성적 3.5 이상이며 나라별 각 나라의 언어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학생(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교류대학에 따라 자격 요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선발 시기는 봄 학기에 파견한다면 전 년 10월~12월 선발되며 가을 학기에 파견한다면 5월~7월 초에 선발된다.

#교환학생 면접 준비하기

서류가 통과되었다면 면접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교환학생 면접이다 보니, 면접에서 외국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당황해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접 예시 문항으로는 자기소개, 학생이 지원한 국가와 학교를 왜 가야 하는지, 한국의 문화를 외국 학생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지, 외국에서 사권 친구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방안, 교환학생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었는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 마디 등 예상 질문 문항을 생각해서 준비한다면 좋을 것이다.

#교환학생 떠날 준비하기

교환학생으로 선발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교환학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온라인 등록하기. 개인정보와 필수서류 등을 등록하여 데드라인을 지켜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하자.

두 번째 대 대학 수학 허가 신청영 제출하기이다. 파견대학에서 수강할 과목들이 본교에서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제출하자. 세 번째는 집 구하기 이다. 파견학교에서 기숙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파견학교와 연계된 부동산 사이트에서 집을 구해보자. 네 번째는 비행기 표 예매하기이다. 떠나기 전 3개월 전에는 비행기 표를 미리 구매하자. 빠른수록 한 가격에 살 수 있으며, 저가 항공 또는 경유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비자발급이다.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재정 증명과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잔액 증명서를 인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보험가입이다. 유학생 보험을 가입하여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보험 가입증서는 영문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카드 발급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거나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국제학생증 발급도 중요하다. 미리 발급하여 현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만들어두자.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

1. 일본
간다외어대학, 리츠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APU), 카나가와대학, 간사이외국어대학, 타이쇼대학, 간사이국제대학, 나가사키외국어대학, 고베예술공과대학 등등
2. 중국
상해공정기술대학, 광둥외어외무대학, 산둥대학, 충산대학, 북경공상대학 등등
3. 베트남
Foreign Trade University
4. 리투아니아
Mykolas Romeris University
5. 멕시코
Universidad De La Salle Bajio
6. 러시아
사할린국립대학
7. 헝가리
Szcz Istvan University
8. 브라질
파발레대학교

#SAP(Study Abroad Program)란?

한 학기 동안 미국, 일본, 중국에서 현지 자매 대학교에서 외국어 학습 및 학점 취득이 가능한 동서대학교만의 글로벌 학습 프로그램이다. 언어집중학습, 현지 프로젝트 수행,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해외 경험과 어학, 학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가장 가고 싶은 나라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연수대상 학교 : 미국 캘리포니아주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연수 기간 : 1학기 9월 초~12월 말(약 4개월), 2학기 1월 중순~5월 중순(약 4개월)
신청서 접수 : 5월, 11월
선발인원 : 학기별 50명
선발 방법 : 성적, CBT 점수, 면접 등을 통해 선발
-일반전형 : 전 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
-Reset 특별전형 :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본교의 BDAD 취지에 맞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거나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

•중국

연수대상 학교 : 중국 호북성 무한시 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財經政法大學)
연수 기간 : 1학기 1월 중순~7월 중순, 2학기 파견 8월 말~1월 중순
선발 인원 : 학기당 60여 명
선발 일정
-1차 전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전형(1학기 파견 : 11월 초, 2학기 파견 : 5월 초)
-2차 전형 : 면접전형 실시(해당자는 국제교류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연락)
-2차 전형 후 최종 선발(1학기 : 11월 말, 2학기 : 5월 말)

•일본

파견 학교 : 일본경제대학(후쿠오카캠퍼스)(福岡キャンパス)
파견 기간 : 1학기 파견 3월 초~6월 말, 2학기 파견 9월 초~12월 말
선발 인원 : 학기당 30여 명
신청서 접수 : 5월, 11월
선발 전형
-일반전형 : 전 학년 평점 평균 3.0 이상인 학생
-Reset 특별전형 : 평균 평점 2.5 미만이고,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본교의 BDAD 취지에 맞는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거나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자
-선발 방법 : 성적, 면접 등을 통해 선발

해외프로그램 선발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몇 명인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서류를 통과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고, 비자도 발급받아야 하는 등 난생처음 하는 난관에 부딪혀 해결하고 견뎌내야 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니면 분명 아주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미리 겁먹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자료출처 : KB라식스, 동서대학교 국제교류센터, LG화학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인턴은 짧은 기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기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고용 형태 중 하나이다. 2018년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20대 대학생과 구직자 10명 중 3명은 기업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 직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펙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인턴을 지원하기 위한 채용정보는 어디서 찾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인턴채용 정보 찾기

인턴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채용 정보를 찾는 것이다. 인턴사원은 보통 2~3개월가량 단기 근무 형태가 많으므로 근무 시작 일예 가깝게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채용 공고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턴 채용 공고는 대학 홈페이지 내 채용 공고를 비롯하여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와 오프라인 채용 행사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에게 맞는 인턴 자리를 찾아보아야 한다.

•국내 및 해외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 사이트

- 워크넷 :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잡코리아 : <https://www.jobkorea.co.kr/>
- 인크루트 : <https://www.incruit.com/>
- 스펙업 : <https://cafe.naver.com/specup>
- 독취사(독하게 취업하는 사람들) : <https://cafe.naver.com/dokchi>
- 인턴피플 : www.internpeople.com
- 글로벌 인턴십 : www.globalinterns-

hip.net

#어떤 곳에서 인턴을 할 수 있을까?

-대기업

대기업인 경우 대규모 조직의 기업문화와 기업의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 계약 기간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연계형 인턴은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뿐만 아니라 선배 사원 중 멘토를 배정하여 업무 능력 및 조직 적응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전문 강사를 초대하여 파워포인트와 프레젠테이션의 기능을 배울 기회가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다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체험해 볼 수 있다. 인턴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비교적 많으며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보다 실무 경험의 기회가 많으므로 본인의 적성을 판단해보기 좋다.

-스타트업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업무 환경이 자유롭다. 조직원들의 연령대 또한 20~40대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업무 후 개인 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잘 조성된 편이다. 조직의 규모도 작아 인턴 사원이더라도 비교적 다양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스펙과 자기소개서보다 경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외국계 기업은 인턴이 정규직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수시채용이나 직원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뽑기도 한다. 본사와의 컨퍼런스 폴과 영어문서작업이

많은 외국어 능력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국제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넓은 관점으로 일을 배울 수 있다.

#지원서 작성하기

인턴채용이라고 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신입사원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다르진 않다.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강점을 드러내면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글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할 점은 분량과 맞춤법이다. 지나치게 너무 길거나 올바르지 않은 맞춤법 표기는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턴 면접 준비하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통과되었다면 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면접이다. 면접관에게는 서류를 통해 알 수 없었던 지원자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체크리스트를 통해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면접 전 체크리스트

- 기업에 제출한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하여 예상 질문을 뽑는다.
- 기업과 직무에 대한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했다.
- 말끝을 흐리지 않고, 침착한 말투로 어필할 수 있게 연습한다.
- 면접 장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통편을 파악한다.
- 본인의 강점과 열정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한다.

자료출처 : 신도리코 기업 블로그

장희진 기자

jhn2087@gmail.com

책 속의 풍경



- 책 제목 :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 책 저자 : 박세희
- 출판사 : 흔

이 책의 제목을 본 어떤 이에게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구나?'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은 의미가 아니라 삶의 의욕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된 말을 통해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남들과 비교하고 외모에 대한 압박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삶,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녀의 모습을 의사에게 상담 치료를 하며 저자의 진솔한 모습을 드러내는 책 내용이다.

책 구절 중 '고슴도치 릴레마'는 서로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욕구가 공존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두어 자신에게 더더욱 가혹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남들과 의존하며 나 자신과 비교하며 더욱 가혹하게 하는 삶을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에 멀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포장하고 있는 삶은 진정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 이 책을 읽고 내가 생각했을 때 어쩌면 진정한 나는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한 수많은 사람이 준 메시지를 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들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나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고 타인과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결국 진정한 나는 내부의 성숙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며 개인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자신에게 보다 솔직해지고 절대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을 깎아 내리진 안 된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챙겨주고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글썽이와 비슷한 사회생활을 살고 있기에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라는 책 일지도 모른다.

이 책은 얼마나 그들이 사회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의 보다는 요즘 많은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시대 반영적인 책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신감은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이고 스스로 얻어낸 것에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이 책에서 가장 잘 드러낸다. 지친 삶에서 글쓰기의 경험을 반영하여 나의 삶을 반성하고 그림으로써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계획해볼 수 있도록 좋은 발판을 마련해준다.

우리는 불안정한 존재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틈 없이 타인의 수용만을 받아들이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겉은 성숙해 보이지만 속은 여러 보이는 젊은 정춘들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책 제목처럼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책은 '떡볶이'라는 흔하 우리 가 볼 수 있는 소재를 잡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는 처음 접했을 때 남들과 동일하게 제목이 왜 이렇지라는 의구심과 이 책이 과연 위로가 될까 하는 의문을 품었지만 책을 읽고 난 후 20대의 젊은 사회에 눈높이를 맞춰 그들의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사소한 해법들과 글쓰기의 경험으로 위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크나큰 반응을 끌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자신감을 가진만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타인과 비교하고 낮아진 자신감을 기존의 대안보다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해본다.



이달의 영화—미 비포 유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다



- 영화제목 : 미 비포 유
- 영화감독 : 테아 샤프

영화 <미 비포 유>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유능한 젊은 사업가였지만 한순간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환자가 된 월과 6년 동안 일하던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백수가 되었지만 집안의 가정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새 직장을 찾던 도중 월의 간병인이 되는 루이지의 이야기이다.

영화의 첫 장면은 뛰어난 사업가였던 월은 한순간의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을 보여준다. 월의 여자친구는 월의 친구와 사귀게 되어 결국 자신은 간병했던 간병인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생각했고 루이지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루이지의 서툰 간병으로 월은 처음에는 루이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월의 예상은 루이지의 노력으로 인해 변하게 된다.

루이지는 월의 까칠함에 불구하고 않고 월과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점점 시간이 지날 수 록 월에게 루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어느 날, 루이지와 월은 한껏 치장을 하고 월이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간다. 월이

의 부모님은 크게 반대하였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악을 복용해 가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월은 자신의 부모님과과는 생각이 달랐지만, 부모님의 막강한 반대와 눈물에 의해 6개월 동안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다. 그러나 월은 자신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월의 부모님도 어느 정도는 체념한 채 월의 남은 6개월을 간병해줄 간병인을 구한다. 이때 간병인으로 구해진 사람은 루이지이다. 루이지는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부모님, 여동생 여동생의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며 자신의 몫까지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다. 루이지는 6년간 카페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었는데, 카페가 문을 닫게 되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로 마음먹는다. 조금은 쉬고 싶었지만 자신이 쉬면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 없기에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던 도중 월의 부모님을 만나 면접을 보고 월의 간병인이 된다. 루이지와 월이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월은 루이지에게 까칠하게 대했다. 여태껏 자신을 간병했던 간병인들이 자신을 아무것도 못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았다고 생각했고 루이지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루이지의 서툰 간병으로 월은 처음에는 루이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월의 예상은 루이지의 노력으로 인해 변하게 된다.

루이지는 월의 까칠함에 불구하고 않고 월과 친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점점 시간이 지날 수 록 월에게 루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간다. 어느 날, 루이지와 월은 한껏 치장을 하고 월이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에 간다. 월이

사고 난 이후, 제대로 꾸미고 밖에 나왔던 첫 순간이다. 월은 매일 집, 집 근처에만 있다가 루이지와 함께 세상구경을 하니 긴장도 하고 즐거워했다. 둘의 외출은 완벽했다. 그날 밤 해변 모래사장 에 월의 휠체어가 빠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월과 루이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해변가를 함께 거닐었다. 루이지와 월은 서로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월의 휠체어가 모래사장에 빠졌고 루이지는 곧바로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월은 거부한다. 월은 혼자서 해보겠다고 노력하지만 그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때 월은 사고 이후 여태껏 자신이 느껴왔던 감정과 생각들을 말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과 함께하면 루이지 당신은 불행해질 것이라고 울부짖는다. 루이지는 항상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월은 거부한다. 도움받아야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싫은 것이었다. 루이지와 월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월의 부모님이 기대 또한 같이 올라갔다. 월의 부모님은 월이 루이지를 통해 삶을 살고 있다는 의지를 느끼고 존엄사를 포기하기를 바랐다. 루이지 또한 그랬다. 월의 결심을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 결국 월은 예정대로 존엄사를 시행하고, 루이지는 그녀의 삶을 살아간다. 월은 자신이 존엄사를 하는 것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 말하며, 루이지에게 앞으로 자신이 없는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남긴다.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월이 해변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말한 장면이다.

‘키덜트’를 아십니까?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키덜트다. 키덜트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바로 어린이를 뜻하는 'Kid'와 어른을 의미하는 'Adult'의 합성어로 '아이들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어른'을 지칭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위에 피규어를 모으거나 좋아하는 또는 좋아하던 캐릭터의 용품을 사서 모으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요즘 레트로열풍이 불고 있다. 옛 것을 좋아하는 21세기 젊은 층을 '뉴트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신기한 물건이 발견되는 요즘에 왜 옛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일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 성인들이 추구하는 재미나 유희, 판타지 등의 가치가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다. 키덜트는 유년시절 즐기던 장난감이나 만화, 과자, 의복 등에 향수를 느껴 이를 다시 찾는 20~30대의 성인 계층을 말한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것 대신 유희 정도도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대인들의 삶이 날로 각박해지면서 어릴 적 감성으로 돌아가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추구하는 일부 어른들의 욕구가 디지털 문화와 맞물리면서 출현한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백화점, 완구점, 영화관,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키덜트를 겨냥해 특별히 제

작한 캐릭터 의류, 액세서리, 장난감, 만화영화 등이 다양하게 등장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로 비디오게임의 활인이 이루어지면 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다. 이처럼 나이를 먹거나 결혼을 한 후에도 취미생활과 자신을 위한 소비를 포기하지 않는 키덜트족은 최근 유통업계 등에서 중요한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다.

G마켓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이상 고객에게 키덜트족, 즉 어른이 성향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전히 어린이 취향의 제품을 좋아하는다는 사람이 73%를 차지했다. 또한 취향 구매 품목은 간식류, 장난감, 문구류, 캐릭터 용품이 있었고 제품 구매 한도는 2만~5만원이 주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대형 백화점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인 행사를 열었다. 이후 미니기와 피규어를 주제로 '키덜트 페어'를 개최하며 키덜트족의 구매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처럼 패션이나 관광에서 캐릭터와 콜라보를 하며 색다른 시도와 함께 키덜트족과 어른들은 겨냥했다. 이를 보면서 유아나 아동에 갇혀있었던 캐릭터 소비가 키덜트와 성인들까지 확대됐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어린이 즐기는 소소한 행복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사진출처-네이버 블로그

세상이 타락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낙원 같은 세계로 '순진무구함'을 주창했다.

여기서 순진무구함은 어린이와 동의어다. 이처럼 우리는 '아이'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순수함, 천진스러움 등은 어른과 반대되는 반의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엔 '어른 아이'란 말이 나오며 이 단어는 사회적으로 독립심이 부족하고 결단력이 없는 나약한 어른을 뜻하는 의미도 생겼다. 반면 재미있게 스스로가 즐기려는 성인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키덜트는 현대 성인들의 각박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감성적이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작용해 취미생활 또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됐다.

#어른을 겨냥한 문화 생성

앞서 언급했듯이 키덜트의 특징은 진지하고 무거운 것 대신 유희할 정도로 천진난만하고 재미있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키덜트가 많이 수집하는 제품은 탱크, 장갑차, 항공모함, 전투기의 실물을 축소한 프라모델이다. 프라모델은 플라스틱 모델을 가리킨다. 또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키덜트가 어린이들과 다른 점은 색도 입히고 부품도 직접 만들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990년대 배경의

드라마 방영으로 복고 열풍이 거세지면서 '키덜트족' 상품들의 판매도 탄력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2013년 11월 24일 자에는 2013년 11월 초부터 복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등장하는 과자 등 추억의 간식 제품이 예년에 비해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복고풍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쩌면 유행이 다시 돌아온 것 일 수도 있다.

현재 키덜트는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감성적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극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발달로 생활 속에 보편화하면서 영화, 음악, 예술, 패션, 제품 등 여러 분야에 콘텐츠로 응용되고 있다. 이 콘텐츠는 현대 성인들에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거나 취미생활을 지향하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주에서도 키덜트 혹은 어른이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저 캐릭터가 좋아서 혹은 아기자기한 것을 모으는 취미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일상생활에 지쳐 소비하는 현대인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스트레스로 인한 소비일지 대중문화로 커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합뉴스
이주원 기자
soo4793@gmail.com

축제·공연·소식



센텀 맥주 축제

- 기간 : 2019.05.31.(금)~2019.06.16(일)
- 장소 : 해운대 KNN타워 광장
- 주최 : 센텀 맥주축제 조직위원회



해운대 모래 축제

- 기간 : 2019.05.24(금)~2019.05.27(월)
- 장소 : 해운대해수욕장, 해운대 광장 일원
- 주최 : 주최 해운대구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 주최 : 울산광역시, (주)SK에너지
- 기간 : 2019.5.22(수)~2019.5.26(일)
- 장소 : 울산대공원 장미원 및 남문광장 일원



부산항축제

-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 기간 : 2019.05.25(토)~2019.05.26(일)
- 장소 :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 영도 국립해양박물관 일원



2019 코넬 엑스포

- 주최 : (사)한국뷰티산업협회
- 기간 : 2019.05.17.(금)~2019.05.19.(일)
- 장소 : BEXCO 제2전시관 4F홀



뮤지컬-영웅

- 주최 : ㈜컬처박스
- 기간 : 2019.05.31.(금)~2019.06.02.(일)
- 장소 :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울산 태화강 봄꽃 대향연

- 기간 : 2019.05.16(목)~2019.05.19(일)
- 주최 : 울산광역시
- 장소 : 태화강대공원

5.18 민주화 운동, 사라진 광주외 봄 날



▶200대의 차량 시위



▶공수부대가 휘두르는 곤봉의 피해



▶전남에서의 거리 시위



신군부의 등장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후(10·26 사태)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막을 내리자,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했다. 당시 신군부는 최규하 과도정부를 유령무실하게 하고 정승화 계엄 사령관을 대통령령 시해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하면서 군부의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의 군사독재 연장 움직임에도, 당시 박정희의 사망으로 민주화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에 부른 국민들의 기대감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이어졌다. 특히 1980년 3월 서울대 총학생회 출범을 시작으로 4월 전국의 주요 대학들에 학생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5월이 되자 대학생들은 계엄령 해제와 유신잔당 퇴진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며, 대학 밖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5월 민주 항쟁의 시작

1980년 5월 10일, 23개 대학 대표로 구성된 전국 총 학생회장단은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전두환·신현확 등 유신잔당의 퇴진' 등을 담은 결의문을 포고했고, 거리 시위를 계획했다. 이런 시위의 조짐을 감지한 전두환 중앙 정보 부장은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조짐을 보인다는 이유로, 비상경계태세 돌입 명령을 내렸다.

5월 13일부터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

은(특히 대학생들 중심) 거리시위를 시작했다. 5월 15일 서울역 앞 집회는 그 정점을 이뤘고, 그날 밤 신현확 국무총리는 시위를 그만두라는 특별대화화를 발표했다. 그에 반발한 시위대는 '서울역 회군'을 단행했고,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 측에 '19일까지 시국수습대책에 대한 답변을 하라'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5월 17일 24시를 기해 전국 계엄령 확대를 시행했다. 시위는 서울뿐만이 아닌 광주에서도 전개됐다.

5월 14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던 박관현을 필두로 대학가와 전남도청 일대에서 거리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를 벌이던 사람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2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대대적인 횃불행진을 벌였다.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저버린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는 많은 이들이 시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신군부는 재야 정치인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시위의 중심세력이라 여겨 연금하고 구금했다. 또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계엄군을 주둔시켰다. 이때, 전북대학교에 주둔한 계엄군에 의해 이세종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5월 18일 계엄군은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을 막아 세웠다. 이에 학생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계엄군은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를 만류하려던 시민까지도 폭행을 당했다.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런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진출했다. 소식을 전해 들게 된 사람들도 하나 둘, 도청으로 몰려들었다. 이때만 해도 시민은 소극적이었고, 조직화되지 않았다.

이후 계엄군은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이면 해산하라는 위협과 폭력을 가했다. 계엄군의 진압봉은 경찰의 진압봉과는 다른 형태로, 구타를 당한 시민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계엄군의 잔인함에 분노한 시민이 계엄군의 의도와는 달리 거세지고 집단화되자, 계엄사령부는 광주지역의 통행 금지 시간을 저녁 7시로 조정했다.

5월 민주 항쟁의 결과

5월 19일 새벽 3시경 증파된 계엄군이 광주역에 도착했다. 시민의 저항은 극심해졌고, 도심 곳곳에서는 시민과 계엄군의 격렬한 대치와 충돌이 일어났다.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하던 계엄군은 결국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9일 오후 4시 30분경,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영찬 군은 계엄차출소 인근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전남 계엄군에게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던 청각장애인 김경철 씨도 19일에 사망했다.

20일 오전 8시경, 계엄 당국에 의해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 오후가 되자 도심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계엄군은 진압봉으로 이를 저지하려 했다. 오후 6시 40분경, 금남로에는 버스, 화물차, 택시 등으로 구성된 200여 대의 차량 시위대가 출현했다. 계엄군과 경찰은 최루탄과 가스로 이를 저지하고, 탑승자를 공격했다. 사람들은 노동청과 세무서로 몰려가 정부의 잔혹한 진압을 규탄했으며, 광주의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방송국에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 MBC 방송국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5월 민주화 운동의 전환점

19일 오후 3시경 계엄군들이 금남로와 충장로로 출동, 전 지역을 들쭉냈다. 오후 7시경 무등경기장을 출발한 200여 대의 차량 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오후 7시경 무등경기장을 출발한 200여 대의 차량 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

고립된 민주 항쟁

5월 21일 오전 2시, 이육교 광주와 외부

를 연결하는 전화가 차단되었다. 도심 곳곳에서 계엄군에 의해 처참히 살해된 시신이 발견되었고, 도심 여기저기 화재로 말미암은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다.

오전 8시경, 계엄군 사이에서 오인에 의한 교전이 발생하여 군인 다수가 사망하기도 했다.

오후 1시경, 전남도청을 향한 시민의 물결은 더욱 거세졌고, 계엄군은 저지선을 돌파하려는 시민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저격수는 시민을 향해 조준 사격을 했고, 총탄에 맞은 시민은 차례로 금남로에 쓰러졌다.

계엄군의 사격은, 시신을 대열에서 끌어내고 부상자를 병원에 후송하려는 시민에게도 향했다.

광주 시내의 병원은 이송된 환자와 시신으로 넘쳐났다. 계엄군이 진압을 위해 총기를 사용하자 시민은 스스로를 무장하기 시작했다. 아사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고 광주·전남 일대의 경찰서와 예비군 단약고에서 무기를 꺼냈다. 무기를 확보한 시민들은 점차 '시민군'이란 이름으로 편제되었고 이후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벌어진 계엄군과의 공방은 시가전 양상을 띠었다.

계엄군, 철수

결국, 오후 5시 30경 계엄군은 전남도청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

계엄군 철수 이후

도심에서 물러난 계엄군은 광주의 외곽을 둘러싸고서 광주와 전남을 오가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쏘며 통행을 막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계엄군의 총탄에 목숨을 잃었다.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사수한 5월 21일부터 28일까지의 7일 동안, 광주에서는 시민 자치체가 실시되었다. 사람들은 계엄군과 치열하게 부딪혔던 현장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광주 시내 각 동마다 부녀자들이 쏟아져 나와 주먹밥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어 시민군들에게 제공했다. 부상자들로 초만원을 이룬 광주 시내 각 병원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광주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앞장섰다.

이후 전남도청 분수대에서는 매일 '시민 광기대회'가 개최되었다. 광기대회에서는 사건의 진상과 정황을 알리는 성명서와 투사회보 등의 유언물이 배포되었고,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았다. 사람들은 주먹밥과 빵 등을 대가 없이 나눠줬고, 부상자를 돕기 위해 헌혈을 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실천했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5 18 기념 제단

▷사진출처 - 5 18 기념재단

김민경 수습기자
rudvmfhelxp@gmail.com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중간고사가 끝나고 모두에게 여유가 생길 이맘때쯤 찾아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대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에 들어왔기에 집을 떠나 학교 근처나 기숙사에 정착한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성인이 되어 첫 발돋움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집을 떠나는

것이 때론 겁나는 일 일 수도 있으며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긴 사람들에게는 가족 품이 그리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모두가 가족을 떠올리게 한다.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깨우쳤을 때 가족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

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넘어 꽤나 무거운 뜻을 지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을 말할 때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함께 도란도란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조부모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자녀가 없거나 입양한 가정 또는 반려견을 포함한 생활 등 국어사전이 내포한 뜻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집단이나 가정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모든 형태들의 공통점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힘들고 아플 때마다 함께 있어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가족 가치관

현대에 들어 가족 하면 떠올리는 판단과 행위의 기준이 옛날과는 달라지고 있다. 전통 사회의 가족 가치관은 효 사상을 강조하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중시하며 가족 중심주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남자는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여자는 가사, 가정을 살핀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이는 가족 행복의 중심으로써 출산을 필수라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 가치관은 자율과 평등, 개인 중심주의의 가치를 기본으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 또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로 새로이 구축되었다. 변화하고 있는 가족 가치관에 맞게 가족에게 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하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치관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가족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의 중요성

가족관계가 항상 좋지만 하지는 않는다.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의 불화로 가족의 의미가 퇴색하는 요즘에는 남들이 보기엔 행복한 가정, 살가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 학교라는 새로운 장소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인 가족이라는 틀에서 기대어 살 수 있다. 최후의 순간까지 믿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이다.

가족은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존재이며, 나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 서로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며 사회에서 제대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습에 도움을 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인성이나 가치관 형성,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가족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 활동하는 집단이며 사회의 기본단위인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우리는 안정된 가정이라는 토대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 진밀감을 느끼고 존중하며 소통하는 가족으로써 자리 잡아야 한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 환경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끼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족 건강성을 높여야 하며 우

리들도 가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족을 소중히 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자주 가진다. 가족 구성원의 입장을 이해하고 경청해야 하며 성 고착화된 생각으로 가족의 역할을 나누지 않아야 한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의사소통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족 갈등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갈등 해결 과정 속에서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가족 결속력이 강화되기도 하며 서로의 대한 이해의 폭이 한 층 더 넓어질 수 있다. 서로 격려하고 돕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천륜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한다. 싸우고 사이가 멀어져도 결국은 다시 원만해지며 서로의 웃는 얼굴로 가정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쩌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가족은 오래 곁에 있으며 서로에 대해 너무 익숙하여 거침없이 말을 하는 사이가 되었다.

이런 우리들은 갈등을 겪더라도 다른 타인과의 인간관계 관리처럼 존중하며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 가족의 중요성을 상기하며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자료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가족'이란? ZUM 화습백과 '가족 가치관의 변화' 에듀넷 기술가정 '가족의 이해' ▷사진출처 - 네이버 블로그 스피치책 면 접을 위한 작전실

김태향 수습기자
hyangsun3311@gmail.com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의 인터뷰-보건 의료 계열 치위생학과 1학년 정지윤 학생

고향을 떠나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동서인 새로운 출발, 홀로서기 프로젝트



▶정지윤 학생의 모습

바빴던 3, 4월을 보내고 가정의 달 5월이 성큼 다가왔다. 모두가 꿈을 위해 달려가는 이 시절, 새로운 지역에서 꿈을 위해 달려가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시작한 타지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다. 고향과 가족의 꿈이 얼마나 그리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타지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나가고 있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학생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거제에 살다가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된 치위생 전공 정지윤입니다.

Q. 고향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소감은 어떤신가요?
A. 처음에는 가족이랑 떨어져 살게 되어서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통학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고향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고 타지에서 생활하다 보니 주변 지리도 잘 몰라서 힘들고 외로웠는데 이제 조금 적응이 되어서 학교랑 가까이 산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공강 시간에도 할 거 없으면 그냥 기숙사에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Q.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A. 부모님이란 떨어져 사는 것과 일주일 내내 학교에 있다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어요.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게 가장 막막해요. 주변 지리도 모르고 아프면 병원도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있으면 학교를 벗어나서 집으로 왔는데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학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도 힘들었어요.



▶기숙사 입주 전, 설레는 마음을 품은 출발 직전의 모습

Q. 반대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즐거웠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A. 기숙사에 사는 다른 친구와 늦게까지 노는 것이 가장 재밌어요. 고등학교 때는 집에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 눈치 보느라 불편했는데 기숙사 생활하고 나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그리고 기숙사 사는 다른 친구들과 이랑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친구랑 헤어져서 쓸쓸하게 혼자 안 가도 되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룸메이트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같이 떠들고 놀다 자는 것도 정말 좋은 거 같아요.

Q. 언제 고향과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나요?
A.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보고 싶을 때랑 집 밥 생각날 때 제일 가고 싶어요. 원래 집 들어갈 때마다 강아지가 반겨주고 잘 때도 강아지랑 같이 있는데 강아지가 떨어지게 되니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학식이 별로 맛이 없어서 집 밥이 너무 그리워요. 학식 먹을 때마다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생각나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Q. 고향 친구들이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어떤 조언을 해주었나요?
A. 룸메이트랑 규칙 잘 정하라는 조언을 제일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룸메이트랑 싸우는 것만큼 힘든 생활이 없다고 서로 규칙 잘 정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조언해줬어요. 저도 누군가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룸메이트와 잘 지내라는 조언을 가장 해주고 싶어요. 기숙사 생활이 힘드나 즐겁나는 룸메이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Q. 가장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가족이랑 고향 친구들 너무 그리워요. 항상 같이 지내고 같이 놀던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다들 보고 싶어요. 대학 가기 전에 같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추억도 많이 만드는 거 추천드립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보는 게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Q.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룸메이트와 잘 지내는 꿀 팁이 있다면?
A. 처음에 규칙 잘 정하셔야 돼요. 진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씻는 시간이나 화장실 휴지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많은 것들을 정해둬야 해요. 초반에 안정해놓으면 나중에 결국 스트레스를 받거나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룸메이트랑 이야기 많이 나눠보세요. 룸메이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두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룸메이트랑 친하게 지내는 것만큼 좋은 생활이 없어요. 되도록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게 정말 중요해요.

Q. 부모님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요?
A. 부모님이란 전화하고 끊었을 때 제일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더 보고 싶고 외롭더라고요. 기숙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가족이랑 전화 끊고 매번 울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통학하는 친구들이 집에 도착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줬을 때도 진짜 보고 싶었어요. 친구들이 집에 갔을 때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그 순간만큼 외로운 순간이 없더라고요.

Q. 부모님께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며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께 편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A. 엄마 아빠 나 친구도 잘 사귀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없다고 울지 마세요! 또 나 대신 우리 강아지도 잘 챙겨주고 엄마 아빠 건강도 잘 챙기고 아프지 마세요! 나도 밥 잘 챙겨 먹고 밤늦게 안 다녔게. 전화 자주 할게요 사랑해요~~!

정성영 수습기자
duddk1015@gmail.com

■자취생의 어머니 인터뷰-1학년 고미소 학생의 어머니

낯선 곳에서 홀로서는 학생들 자취생 어머니의 솔직한 이야기



▶고미소 학생이 자취 생활을 하며 차린 밥상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막 자취를 시작하는 자취생들의 가족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취를 시작하면서 무사히 적응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따라오는 막연한 불안감은 비단 자취생들의 부담만이 아닐 것이다. 그들의 뒤에서 받쳐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은 자취생들과는 다른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하여 자녀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다.

Q.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고미소 학생의 엄마, 김상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Q. 자취를 시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A. 아무래도 자녀가 이때까지 부모가 해줬던 일들을 혼자서 해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됐죠. 이 부분은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공감하실 거예요.
자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부모에게 막 걷기 시작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 내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동지 밖에서 살아간다는 게 부모로서 얼마나 미묘하고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Q. 자취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A. 장기적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나 역시 경제적인 면이죠(웃음). 하지만 이마저도 다 감수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 이사를 도와주려 같이 자취방에 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비싼 물가에 아찔했던 기억이 나네요.

Q. 자녀가 가장 그리울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A.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딸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제 딸이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하루는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한 날에 다 같이 먹는 식탁에서 숟가락 하나가 빠져있는 걸 보면 팬스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 허전함은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같이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하곤 해요.

Q. 자취 생활을 하면서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A. 치안이랑 건강, 이 두 가지가 가장 걱정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자취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딸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뤄기도 했고 자취만은 안된다고 강경하게 밀고 붙이기도 했었죠. 엄마의 마음으로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안전하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생활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자취를 하겠다는 아이의 말에 결국 포기했어요.

허락한 후에 마음이 내내 불편했고 지금도 그 걱정이 사라진 건 아니예요. 하지만 타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매일 딸이 처보고 안심하라는 듯 문자나 사진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안심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딸이 아프지만 않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생활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Q. 반대로 이것은 걱정 없다 하는 점이 있다면?
A. 제 딸이 밥 하나는 누구보다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자취를 시작하기 전인 평소에도 집에서 끝날 밥을 해 먹었기에 영양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덜하죠.(웃음) 마음 같아서는 반찬 하나라도 갖다 주고 싶지만 저렇게라도



▶고미소 학생의 어머니

잘 챙겨서 먹어주면 그만큼 안심되는 게 또 없을 것 같네요.

Q. 자녀의 자취를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A. 앞서 말했듯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보내줬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기특하게도 현재까지 잘 해주고 있네요. 그냥 딸이기에 대한 저만의 믿음이 아니라, 딸 스스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더 강한 믿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혼자서 여러 부동산 서류들을 작성하고 타지에서도 꿈을 펼치고자 하는 열정이 보여서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두 눈으로 직접 봐 왔고, 어엿한 어른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일찍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요. 그저 같이 나가주지 못하는 게 미안할 뿐이에요.

Q.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을 자취생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저도 한때 자취 생활을 하면서 가장 생각나고 그리웠던 것은 아무래도 엄마 생각이랑 집 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떠오를 테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참아오다가 눈물 흘릴 날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생각 하나로 버티며 참았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은 많아. 잘 참자.” 따뜻한 한마디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온 날은 인생의 몇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자 일부가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한여울 수습기자
hanyeowon0329@gmail.com

이달의 성경 속 인물 - 롯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롯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

롯은 아주 짧고 보석 같은 이야기다. 구약성서에는 사사기의 잔인한 이야기 다음에 사랑과 충절에 관한 롯기의 4개 장

이 이어진다. 실제로 롯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롯기 1:1)라는 구절로 시음에 사랑과 충절에 관한 롯기의 4개 장

맛아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살게 되었다. 아들들은 모압 족의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 뒤 세 남자가 모두 죽어 과부 셋만 남게 된다. 롯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머느리 모르바는 모압에 남기로 하지만 다른 머느리 롯은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다.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롯기 1:16). 이후 롯과 나오미는 가난한 삶을 이어가는데, 부유한 지주 보아스가 총직하고 선량한 롯에게 감명을 받아 그녀와 결혼한다. 이 이야기의 백미는 롯과 보아스의 아들 오벧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스라엘인들이 좋아하는 왕 다윗을 낳는다는 데 있다. 이스라엘은 늘 주변 민족들에게 시달렸다. 모압족은 다른 민족들처럼 다신교를

믿었다. 그들은 주신인 그모스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쳤다. 롯기는 다윗 왕의 조상이 ‘이교도’였다는 것을 말해준다(비록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종교로 개종했지만). 롯기는 외국인에게 신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겨냥한 책이다. 신약성서에서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의 계보를 보면 조상들 중에 롯의 이름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매년 오순절 축제 때 롯기 전체를 읽는다. 앞에서 인용한 롯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결혼식 때마다 낭독된다.

롯기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사랑한 화가들은 틀란에서 이삭을 줍는 롯의 모습을 자주 그렸다. 니콜라 푸생(Nicholas Poussin)의 걸작 「여름(롯과 보아스)」(1664, 루브르)에서 롯은 화려한 복장의 보아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그보다 더 유명한 그림은 장 프랑수아 밀레(Jean Francis Millet)의 「이삭줍기」인데, 이 작품은 「롯과 보아스」라고도 불린다. 롯기는 또한 성서 이야기를 즐겨 영화화하던 1960년에 「롯

의 이야기」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짧은 롯기의 내용을 두 시간짜리로 늘린 이 영화는 모압에서 보낸 롯의 유년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던 의식을 소개했다. 이스라엘로 이주한 그녀는 외국인이라고 배척을 받는다(롯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Cesar Franck)는 1846년에 「롯」이라는 오라토리오를 썼으며, 러시아 작곡가 미하일 이폴리토프 이바노프(Mikhail Ippolitov-Ivanov)는 롯에 관한 오페라를 지었다. 성서에는 롯기를 비롯해 여성의 이름을 제목으로 취한 책들이 있다. 다른 두 가지는 에스더와 유딧이다. 롯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권에서 여자 이름으로 애용된다. 그가 살던 소돔은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아벨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으나 롯의 가족만은 아브라함의 간구로 구원받았다.

미술대사전(인명편)에서의 롯은「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이며,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르단의 낮은

땅에서 살았다. 그는 천사의 권유에 따라 가족과 더불어 소돔의 거리에서 빠져나와 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제되었다. 이때 롯기는 피신지의 그의 처는 신의 명을 어기고 뒤를 돌아 보았기에 소금기둥으로 변하였다.
두딸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브와 베냐민을 낳았으며(창세기 13장 9~10절, 19장). 연속 설화로 다루어진(예:「창세기」,「엘프릭 5대서」, 몽테아레 대성당 모자이크) 이외에도 화염에 쌓인 두 도시의 극적표현 「소돔과 고모라」나, 아버지와 동침하는 딸이라는 특이한 선정적 주제로 인하여 16세기 이후 근대화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예: 루카스 반 레이덴의 「롯과 그의 딸들」 루브르미술관, 알트르프의 「롯과 그의 딸들」(비엔나 미술사 미술관)에 사진되어있다.

▷사진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조은빛 수습기자
dmsqlc111@gmail.com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 교통 데이터 활용 공모전**
 •모집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응모분야 : 공모전
 •접수기간 : ~2019. 05. 31. (금)



-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모집**
 •공모분야 : 장애인 고용인식 개선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접수기간 : ~2019. 06. 14. (금)



- 첫 수업을 양천청년학교 청학동에서 시작해볼 청년들**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모집기간 : ~2019. 05. 10. (금)



- 예컨대 프로젝트**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모집일정 : ~2019. 5. 12. (일)



- 성평등 활동 기획단 모집**
 •공모분야 : 대외활동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공모일정 : ~2019. 5. 10. (금)



- 너를 광고해봐! 영상찍기**
 •공모분야 : 대외활동/서포터즈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접수기간 : ~2019. 05. 17(금)



- 안전한학교 공모전**
 •공모분야 : 공모전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일반인
 •접수기간 : ~2019. 5. 31. (금)



- 2분 아이디어 공모전**
 •공모분야 : 공모전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공모일정 : ~2019. 05. 19. (일)



- 제5회 신한 29초 영화제**
 •공모분야 : 공모전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공모일정 : ~2019. 5. 31. (금)



- 남북정상선언 이행을 위한 통일 콘텐츠 공모전 “우리는 통일세대”**
 •공모분야 : 공모전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접수기간 : ~2019. 06. 15. (토)



- 월세드림 대학생 공모전**
 •공모분야 : 공모전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대학원생
 •공모일정 : ~2019. 05. 29. (수)



- 부산 국제청년센터 청년운영단 모집**
 •공모분야 : 대외활동
 •응모대상 : 대학생/대학원생
 •공모일정 : ~2019. 07. 25. (목)
 (선 지원 선 면접, 선착순 마감)

동서인의 센스 넘치는 N행시!

두 :
 빛 :
 나 :
 래 :



두빛나래는 두 개의 빛나는 날개라는 뜻의 아름다운 우리말이다. 새 출발의 3월, 첫 시험을 치른 4월까지 너무 잘해온 동서대 학우 여러분들, 부디 가정의 달 5월에는 친구관계에서도 가족관계에서도 내가 노력하는 모든 일들에 두 날개를 좀 더 힘껏!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한다!

예시)

두 : 두 날개를 힘껏 펼치는
 빛 : 빛나는 5월에는
 나 : 나에게, 너에게, 모두에게
 래 : 애정을 줄 수 있는 동서인이 됩시다.



- 이번, 학과, 이름, 연락처를 써서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거나 010-4760-3385로 연락주세요
 ※ 5월 24일까지 퍼즐에 응모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두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학 과 : _____
 학 년 : _____
 이 름 : _____
 연 락 처 : _____